



희망으로 섬기는 사람들 Society of St. Vincent De Paul

2018  
제9호 **01**

# 빈첸시안

주 소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명동2가)  
가톨릭회관 706호 (04537)  
전 화 (02) 2271-2176 / 팩스 (02) 778-0490  
홈페이지 www.ssvps.or.kr  
공식cafe cafe.daum.net/15vin  
E-메 일 svincent@catholic.or.kr

발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 담당사제 : 이재을 사도요한 | 발행인 : 이연출 타대오 | 편집 : 홍보부 편집팀



## 주님의 평화를 찬미하며, 그 복을 가득히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소서!

새해 첫날, 우리는 이웃과 형제들에게 축복을 베풀어 줍니다. 축복은 복을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그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축복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benedictio(좋은 말)가 축복입니다.

좋은 말로 말할 때에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 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좋은 말은 꽃을 피우게 합니다. 좋은 말은 모두를 살리는 것' 이렇듯, 좋은 말은 모두에게 복을 전달합니다.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도 곱다고 합니다. 축복은 좋은 말, 선한 말, 참된 말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축복은 말씀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전할 때에 축복이 됩니다.

그 말씀을 서로 나눌 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됩니다. 새해에 아론의 아들들인 사제들도 백성들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기뻐하고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서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불편함, 답답함, 기쁘지 않음, 행복하지 않음 등을 떨쳐 버리고 축복하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웃에게, 사회 모든 이들에게, 우리나라에, 온 세계에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축복을 비는 마음은 평화의 마음이고, 평화는 모든 아들에게 행복을 주는 마음입니다.

평화를 주시는 성모님께, 평화의 주님께 전구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함께 이야기 하며 그 말씀을 축복으로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를 찬미하며, 그 복을 가득히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가득히 내려주소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담당사제 이재을 사도요한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Society of St Vincent de Paul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루카 1,28)

##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 – 사랑은 새로운 복음화의 열매 –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루카 10,37)



교구장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구는 2012년 10월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선포하신 ‘신앙의 해’를 기점으로 신앙의 강화와 성장을 위하여 ‘말씀으로 시작되는 신앙’, ‘기도로 자라나는 신앙’, ‘교회의 가르침으로 다져지는 신앙’, ‘미사로 하나 되는 신앙’,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 다섯 가지 사목 목표를 세워 매년 하나씩 실천해왔고 올해는 그 마지막 해로서 지금까지 다져온 신앙에 기초하여 우리 교구 전체가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삶을 실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스도 신자답게 살려면, 먼저 우리를 사랑해주신 하느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성실하게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느님의 사랑을 배우고 묵상하며, 체험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과 기도, 성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

나는 사람은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변화되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며 또 이웃 사랑은 우리를 하느님께 대한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신자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가정 공동체와 본당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성장시켜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합시다.

하느님의 사랑은 중심에 둔 공동체는 자신이 살아가는 학교, 직장, 사회 안에서 사랑을 증거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올 한해 하느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로 그분의 뜻을 헤아리며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그분의 삶을 더 배우고, 미사 전례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더 깨닫고 체험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하느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신앙’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2018년 서울대교구장 사목교서〉 중에서 발췌

## 2018년 사목교서에 따른 지침

### 1. 소공동체 활성화

본당, 교구 차원의 양성 프로그램(피정, 연수, 특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합시다.

### 2. ‘변두리로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

지역 교회 안에 있는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그들의 삶을 사랑의 시선(관찰)으로 바라보도록 노력합시다.

### 3. 하느님 사랑 안에 머무르기

기도생활에 충실하며 자주 미사에 참례하고 성체를 모심으로, 성체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이웃들에게 자신의 시간, 재화, 재능 등을 나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4. 이웃 사랑으로 열매 맺기

나눔의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인 기부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며, 소공동체 모임 안에서 반드시 구체적인 실천사항(상가, 병자, 독거노인 방문 등)을 정하여 교회의 봉사직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 5. 지역 사회의 시설 및 기관의 협력을 통한 활성화

사회복지분과 및 빈첸시오회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소외된 이웃을 찾고 지원하는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사목의 대상을 신자가 아닌 지역 주민에게까지 대상을 넓혀주시요.

지역 사회의 시설 및 기관과 함께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 제21대 교구이사회장 이연출(타대오) 이임 미사



12월 15일, 각 지역, 지구이사회장 및 교구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이연출(타대오) 회장의 이임미사가 봉헌되었다. 이재을(사도요한)신부님은 강론을 통해 3년간의 임기를 마친 회장의 빈첸시오회 발전을 위한 노력과 그 결실을 치하 하였으며 감사의 뜻으로 담당주교이신 손희송(베네딕도)주교님의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글·사진 | 교구이사회 홍보팀